

**모짜르트, 볼쇼이, 그리고 시위대****The Guardian, March 16, 2005**

반공 청년단체 〈Moving Together〉는 극장과 볼쇼이 음악감독 집 앞에서 전통과 도덕적인 가치관으로의 회귀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러시아의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표현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러시아 하원은 문화위원회에 오페라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를 심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볼쇼이 측은 오페라가 저속한 대사나 음란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쟁으로 인해 3월 23일 개막 예정인 〈로젠탈의 아이들〉은 막을 올리기도 전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보고 있으며 기사를 쓴 블라디미르 소로킨의 책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간 복제와 동성애 등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소재의 소설로 러시아와 유럽에서 잘 알려진 아방가르드 작가 블라디미르 소로킨의 가사에 작곡가 레오니드 데사아트니코프가 곡을 붙인 〈로젠탈의 아이들〉에는 복제된 5명의 작곡가 바그너, 베르디, 무소르그스키,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가 등장한다.

**영국 왕립발레스쿨, 소외계층에 문화 개방****Guardian, March 8, 2005**

런던 시장이 18세기에 지어져 영국왕립발레스쿨의 하급 학교 교사로 사용되어 온 리치몬드 공원 저택의 재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조건부로 소외계층에 발레 교육 프로그램 중대에 합의를 보았다.

런던 시와 왕립발레스쿨 간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학교의 〈Dance Inclusion Programme〉과 〈Aim Higher in Dance〉 프로젝트에 향후 5년 동안 런던의 1개 학교가 더 포함되어 확장 운영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발레 수업과 리허설, 공연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다양한 소외 계층의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발레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교사, 시민들은 문화유산 투어나 전시회 기간동안 학교 건물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클래식 음악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피아니스트 랑랑**  
**Toronto Star, March 13, 2005**

요요마 이후 국제 음악계에서 가장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 온 아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은 화려하고 완벽한 기교와 자유분방한 개성으로 천체에 빠졌던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주가로서의 뛰어난 재능 외에 그는 강력한 매력과 카리스마, 정열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활동을 거의 복음 전파와 같은 소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점이 그를 유니세프 문화대사로 임명되게 하였으며, 2002년도의 『Teen People』지에 의해 세

계를 변화시킬 '세계 최고 20대 청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5년 전 전문 연주자로 데뷔한 이래 북미 및 유럽의 모든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지금까지 발매된 2장의 CD와 DVD 1장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세 번째 CD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 2번과 카가니니 랩소디〉도 곧 발매될 예정이다.

**흔들리는 라스칼라****Gramophone, February 28, 2005**

1990년부터 라스칼라의 총감독을 맡아온 카를로 폰타나와 음악감독 리카르토 무티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던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의 긴장 관계는 이사회가 총감독 카를로 폰타나를 해임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사회는 폰타나의 후임으로 라스칼라의 예술감독 마우로 멜리를 임명하였다.

무티와 폰타나는 오랫동안 극장의 경영 방향과 레퍼토리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왔으며 무티는 폰타나의 정책이 대중의 인기만을 추구하는 속물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스태프들은 극장의 운영 방식에 반대하며 파업과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극장 지붕에서 늘어뜨린 현수막에 "장시간은 극장을 떠나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장의 원리만을 쫓는 경영진을 비난했다.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가는 볼쇼이 극장****The New York Times, March 5, 2005**

지금까지 극장 내부의 진통과 정치적 내분, 건축 설계상의 이견, 비용 등의 문제로 수년 동안 지연되어 온 볼쇼이 극장 본극장의 재건이 오는 7월 1일 문을 닫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정확한 재개관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2008년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오페라단과 발레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볼쇼이는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흠 무대를 떠나게 된다.

무대장치 설비와 센트 보관 공간을 확대, 개선하고 이동 가능한 오케스트라 피트 설치, 카페 및 화장실 개선 등이 포함된 재건이 완료되면 세계 최고를 자랑한 코벤트 가든이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맞먹는 극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세기 중반에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볼쇼이 극장은 당시에 시멘트를 쓰지 않았으며 수차례에 걸친 기술적 변화와 축한의 날씨로 인한 냉각과 해빙이 반복되면서 자반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치명적인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하탄의 이동식 미술관****The New York Times, February 24, 2005**

침몰된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이 집결하여 해산했던 장소로 유명한 맨하탄의 54번 부두에 도교 출신의 건축가 시게루 반의 이동식 미술관이 들어섰다.

45,000평방피트에 달하는 이 미술관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6월 6일까지 〈재와 눈(Ashes and Snow)〉이라는 제목으로 그레고리 콜버트의 대형 사진작품 200점이 전시되고 있다.

이 전시는 단순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벽면이 총 148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4단씩 37칸의 비독판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천정과 기둥은 종이로 만든 튜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정으로부터 내려온 수제 커튼은 이미 사용한 티백의 차이를 버리고 납작하게 만든 백만개의 티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컨테이너를 비롯한 모든 재료가 재활용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 예술지원 예산 확정****CBC, February 23, 2005**

2005년도 캐나다 정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문화 부분의 예산은 1억 7천 2백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또한 정부가 2001년도부터 캐나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아심차게 시작하여 지난 3월 끝난 〈오늘을 시작하는 내일(Tomorrow Stars Today)〉 프로그램을 재개되며 향후 5년간에 걸쳐 6억 8천 9백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2천 5백만 달러를 지원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캐나다의 예술계는 부족하나마 숨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방송사(Canadian Broadcasting Cooperation)도 2005-2006년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에 6천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윤곽 드러낸 모스크바 비엔날레****The Art Newspaper, January 25, 2005**

소련에서 개최되는 국가 차원의 최초의 현대 미술 비엔날레가 될 '제1회 모스크바 현대미술 비엔날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비엔날레를 기획한 조셉 벡스타인은 당초 계획했던 거물들의 초청 대신 소비에트 시대 이후의 세계 미술계에 새로운 러시아의 미술을 소개하는 데 더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희망의 변증법(Dialectics of Hope)〉를 타이틀로 자본주의의 압력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던 유토피아를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유럽 사회에 재진입하려는 러시아의 희망을 담고 있다.

총 22개국에서 41명의 작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중 15% 정도는 러시아 작가들로 채워지게 된다. 비엔날레의 중심 개최장소는 붉은 광장 옆의 레닌 박물관이며 이외에도 모스크바 대학 근처의 레닌 언덕 지하철역과 슈츠세프 건축박물관에서도 동시에 전시가 이루어지며 모스크바 시내 전역에서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서정애 | 본원 국제교류팀 차장